



유종근(전 전라북도지사)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인류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지구촌(global communi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이다.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 간 정책을 국제 규범에 맞추어 조정해나가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우리 정부에 정규직 보호를 완화할 것과 서비스 부문 규제를 철폐할 것, 농업 분야의 직접 지원을 축소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권고를 예전에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무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OECD 회원국 간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세계화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

www.kci.go.kr

개해주는 매커니즘으로서 시장이라는 제도가 대두된 이래 교환의 스케일을 키워 이윤추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왔으며 그에 따른 시장 영역의 지속적인 통합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왔다. 세계화는 시장경제 체제가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언제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맥길리브레이(A. MacGillivray)는 세계화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5)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¹⁾ 월러스틴(I. Wallerstein)은 16세기부터 세계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²⁾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 그 자체가 시장을 확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세계화의 과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다이내믹이 수백 년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이 범세계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으며 지구의 오지에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³⁾ 이에 관해 경제사학자들은 세계화의 진행 과정에서 두 번의 큰 물결이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19세기 초부터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교통 및 통신 수단의 혁명적 발달이 큰 동력이 되었으며, 두 번째는 1990년대 이후로 냉전의 종식과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고 한다.

이제 세계화는 좋은 나쁜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 이 논문 중 세계화에 관한 내용은 상당 부분 유중근(2000)과 유중근(2013)에서 차용했음을 밝혀둔다.

- 1) A. MacGillivray, *A Brief History of Globalization: The Untold Story of Our Incredible Shrinking Planet* (London: Constable and Robinson, Ltd., 2006). 유윤중,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계화: '세계화' 상 황에 대한 예언자적 사역」, 『구약논단』 제50집(2013년 12월), 38을 보라.
- 2) I. Wallerstein,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9.
- 3) 윗글. 1990년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석방된지 수개월 후 캐나다를 거쳐 아일랜드로 가는 도중에 북극 지역의 구스베이에서 만난 에스키모 청년이 만델라의 석방을 TV로 보았다면서 "ANC(African Nationsl Congress)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27년의 감옥 생활 동안에 세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실감했다고 기록했다. N. Mandela, *Long Walk to Freedom* (Boston, New York, Toronto,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4), 509.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미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가격 경쟁이 국가 간의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려 결국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요즘 용어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시키고 말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세계화의 필연성을 암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세 속에서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을 전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반세기에 걸친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는 새롭게 탄력을 받아 성년 과도처럼 지구촌 전역을 휩쓸고 있다.⁴⁾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이래 얼마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다. 독립 이래 시장경제 원리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줄기차게 견지해오던 인도도 40여 년의 침체 끝에 20세기가 끝날 무렵 결국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수용함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얻기 시작하여 잠재적 경제 강국으로 기대를 모으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에게 치욕적인 군사적 패배를 안겨주었던 베트남은 경제 전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었다. 베트남은 냉전이 끝난 이후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의 투자를 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WTO 가입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⁵⁾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세계시장을 계속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적 무역 정책 노선을 추구한 나라들이 폐쇄적 정책 노선을 따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4) 2008년 가을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반작용으로 금융 산업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세계화의 대세에 밀려 아직도 실효성 있는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베트남은 2000년 11월에 WTO에 가입하였다.

했다는 사실이나⁶⁾ 세계화가 가속화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세계의 극빈 인구가 반으로 줄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해준다.⁷⁾

세계화 시대의 산업 생산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사슬로 묶이게 된다. 1995년에 발족된 WTO 체제는 과거와 같은 상품 교역만이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내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주도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IT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에서도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자본, 서비스, 금융, 노동, 지식, 기술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관세장벽이나 시장보호 정책에 의지해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감에 따라 세계 경기의 등락은 곧바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기의 등락은 직접 외부와 연결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 내부로 파급되어 나간다. 기업 경영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노동시장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와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심해진다.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어 인류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적응해나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6) J. D. Sachs,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356-357.

7) B. Gates, "Good News: Vaccines are Conquering the World", *The World Post*, January 22, 2014.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산층 인구가 빈곤 인구를 능가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비안 국가들이 빈곤퇴치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빈곤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3%로 반감되었고 중산층은 34%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상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The World Post*, Weekend Roundup, 2014. 5. 3.

외환위기를 통해 확인한 세계화 시대의 경쟁 원리이다. 싫든 좋든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2. 구약성서의 가치와 세계화

1) 세계화와 이념

세계화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반세기에 걸친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수용되면서 여러 세기 동안 진행되어 오던 세계화가 갑자기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화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에서 완승을 거둔 자본주의 이념의 지배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⁸⁾ 그러나 냉전체제를 이념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방법론의 대결로 보는 분석도 있다.

미래학자 토폴러(A. Toffler)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진영 간의 대결은 표면상으로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념의 대결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대 진영이 다 같이 하나의 초이념(superideology)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초이념은 산업사회 이념(Indust-reality)이라는 것이다.⁹⁾ 양대 진영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교조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으나 양쪽 다 똑같은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마치 가톨릭 선교사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동일한 경전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실천 양식을 전파하는 것처럼 양대 진영이 '어떠한 양식의 산업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가톨릭

8) 유윤중, *유훈*, 59.

9) 토폴러는 첫 번째 물결인 농업혁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물결인 산업화 시대가 도래한 결과 새로운 현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면서 산업화의 현실에 적응하여 조성된 새로운 사고방식을 Indust-reality라고 규정했다. A.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1980), 98-115를 보라.

이나 개신교나 동일한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산업사회의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적용하여 생성된 사고방식을 초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념'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나는 김경원의 분석에 공감한다. 김경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전쟁은 처음부터 진정한 이념대결이 아니었으며,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결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⁰⁾

마르크스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이 항구적으로 극복되는 경제체제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사회주의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접근 방식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capitalism)는 '주의(ism)'라는 접미사가 붙어 있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이념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 제도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냉전은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토대로 하면서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토대로 하면서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던 국가들 간의 방법론적 대결이었던 것이다.

냉전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멸로 끝났다. 그 결과 모든 인류의 꿈인 자유 평등 평화의 실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소유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만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마르크스는 강압적으로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10) Kyung-won Kim, "Marx, Schumpeter, and the East Asian Experience,"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evisit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n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1993), 11-25.

소유욕을 없앨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다. 그러나 인간의 소유욕을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할 때만이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가능해지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써는 오히려 자유가 박탈되고 평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¹¹⁾

시장경제와 자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장경제 체제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과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한다. 재산(개인의 노동력 포함)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권리를 토대로 시장경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는 소유와 교환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약한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력을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자기가 선택한 조건으로 교환하지 못한다면 이는 노예와 다를 없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능력에 따라 소유하고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보다 더 자유를 보장해준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다른 편익(예를 들어 소득 수준의 향상)을 무시한다 해도 이 제도가 보장해주는 소유와 교환의 자유만으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당사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강요된 교환이 아니므로 교환을 원하는 쌍방이 각자 이득(금전적인 이익이든지 가격이 상응할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욕구 충족이든지)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교환이 이루어진다. 자유 교환이야말로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sum game), 즉 흔히 말하는 ‘윈윈(win-win) 게임’인 것이다.¹²⁾

11) 물론 정치적 사회적 자유는 성서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율법과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요 8:32b)고 예수가 지적인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갈 5:18)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갈 5:24) 때에 가능하다.

12)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라고 한다.

물론 교환의 자유가 모든 경우에 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경우, 자유의사에 의한 교환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모든 교환 행위는 교환 당사자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여건, 즉 선택의 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자유교환을 선택했다 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도 이 같은 교환을 금하고 극빈자의 생계 문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소유와 교환에 약간의 제약은 있다. 예를 들어 총기와 마약류 등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을 때에는 법으로 소유와 교환을 제한한다.¹³⁾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법에 근거한 극히 제한된 경우이고, 기본적으로 소유와 교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의 원칙이다. 이는 성매매, 마약 거래, 총기 거래 등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교환이 제약이 있는 교환이나 강요된 교환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치가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중한 소유와 교환의 자유를 시장경제 체제가 대두되기 전이나 그 후의 다른 어떤 체제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곳에서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이념이 아니고 하나의 제도일 뿐이라 하여 우리가 지금 이념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이념은 ‘맘몬 숭배’다.¹⁴⁾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만의 고유이념이 아니며 인류 사회의 역사와 항상 함께해왔다. 구약 시대에도 풍요의 신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경고했으

13) 최후의 생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으로서 매춘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14) 유윤중, 윗글, 59.

며(출 20:3; 신 6:5) 예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선언했다(마 6:24; 눅 16:13).

그러면 세계화를 지배하는 새로운 이념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코피 아난(K. Annan)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는 용어”로 보기보다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⁵⁾ 그가 지적한 이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이념을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세계화의 철학적 근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도 mammon 숭배에서 파생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주류가 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소위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과를 내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은 자국만의 일방적 시장개방을 지양하고 전 지구적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년간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주도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상품이나 자본과 기술 등의 이동을 제약하거나 기타의 규제 행위로 기업들의 경쟁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론일 뿐이다. 박영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규제를 풀고 국경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는

15) M. L. Sta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vol. 1, Religion and the Powers of the Common Life*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4-5.

“경제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한 것이었다.”¹⁶⁾ 같은 맥락에서 아이작(R. Isaak)은 세계화를 한 무리의 부유한 보수주의자들이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축적하기 위해 일으킨 ‘부자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한다.¹⁷⁾ 결국 지구화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배경에는 “무한한 경제성장을 절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물질숭배의 정신과 이념”¹⁸⁾ 즉 맘몬숭배가 여전히 지배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민중해방의 시대

20세기 후반은 인류 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인류가 고대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체제가 지속되었다. 통치자들과 특권층은 힘없는 백성을 수탈했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지배하고 차별했으며, 백인들은 흑인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부려먹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식민지배하면서 탄압과 착취를 일삼았다.

이러한 낡은 질서는 불과 7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대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탈식민지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현했으며, 민주주의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얼마 전까지 당연시 되던 인종차별과 남녀차별도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말에 이르러

16) 박영신, “초월의 정신과 범세계화의 정황 – 구약의 상징 구조에 대한 사회학도의 생각 하나”, 「구약논단」 제 50집(2013년 12월), 91.

17) 로버트 A. 아이작, 「세계화의 두 얼굴」(강정민 옮김), (서울: 이른아침, 2006). 원제는 Robert A. Isaak, *The Globalization Gap: How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Left Further Behind*(New York: Prentice Hall, 2005).

18) 김용복, 「지구화시대 민중의 사회전기: 하나님의 정치경제와 디아코니아 선교」(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241.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민중해방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즉 승진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전국과 전쟁 피해 국가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준 것이다. 미국의 도움에 감동한 영국의 처칠(W. Churchill) 수상은 이를 “위대한 이타주의 행위(a great act of selflessness)”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997년 마셜 플랜 50주년을 기해 이를 재평가한 학자들은 50년 전 미국의 경제 원조는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화된 이기주의(enlightened self-interest)’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일까? 다름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자급자족의 가족농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었다.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자급자족 체제에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자기 손으로 생산해 소비하면 그만이었다. 이 같은 자급자족형 가족농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 국부를 증대시키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다 같이 자유를 누리고 함께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남을 희생시켜 혼자만 잘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낫은 전략임을 깨달은 것이다.

자급자족형 가족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생산자들 사이에 잉여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이에 따라 이 같은 교환을 매개하는 중간상인이 등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생산의 목적이 차츰 자가소비에서 교환으로 바뀌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개하여 원활한 교환을 돕는 시스템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분업을 가능케 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제한된 분

업은 가능했으나 대량생산을 위한 체계적 분업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소비할 물량 이상의 대량생산도 불필요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산·공급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기술과 시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수록 더 큰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곧 분업을 낳았다.

분업화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 것은 애덤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이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편을 만드는 공장을 예로 들면서 10명이 18 가지 공정을 분담하여 각자 한두 가지 일에만 전문화된 결과 혼자서 모든 공정을 다 완수하는 숙련된 장인들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이 240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했다.¹⁹⁾ 오늘날의 생산 과정은 스미스가 관찰했던 18세기 중엽에 비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러 사람이 각각 세분화된 공정을 나누어 맡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이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씩 모여 제품이 완성된다. 그 결과 생산 과정에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같은 분업화의 시너지 효과로 생산성이 갈수록 향상되고 생산단가가 갈수록 하락하여 보다 많은 양의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교환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그런데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이며, 학생이나 노약자 등을 제외한 다수의 소비자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소비자 등 전체 구성원이 긴밀히 얽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만인이 만인에 의존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 곧 시

19) 애덤 스미스, 「국부론 1」 (유인호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6), 29-30. 원제는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Strahan and Cadell, 1776).

장경제 체제를 형성하게 했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세탁소 경영에서부터 반도체 생산에 이르기까지”²⁰⁾ 모든 경제활동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시장경제 체제는 교환을 통해 다 같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체제이다. 교환 행위는 반드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모두가 팔려고만 하고 아무도 남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모두가 못살게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나라가 각각 수출은 장려하면서 수입은 억제한다면 국제 교역이 위축되어 모두가 피해를 볼 뿐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상호 의존 관계는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다. 1929년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한 금융 경색이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미주와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나부터 살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네 이웃을 거지로 만들라(Beggar thy neighbor)’는 정책을 다투어 실시했고, 급기야 세계대공황으로까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나라가 수입을 억제하면 어떤 나라도 수출을 할 수 없으며, 결국 다 같이 못살게 된다는 시장경제 체제의 상호 의존성을 확인한 것이다.²¹⁾

자국의 시장(영토)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거친 시장 확대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가담한 나라들에게 이득은커녕 손실만 안겨주었다.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농경시대의 논리, 즉 제로섬(zero-sum)의 관점에 입각하여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보호무역

20) F.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6.

21) 1929-1933년에 세계교역량이 4분의 1로 감소했고 산업생산은 44% 감소했다.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는 다 같이 못살게 되는 네거티브섬(negative-sum) 게임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2차 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관계를 공생공영의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적 경제 정책에서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²²⁾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식민지의 독립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네거티브섬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식민지를 포기하고 독립을 허용했다. 특히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 패전국과 전쟁 피해국의 경제 복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의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였다. 미국이 천사의 나라여서가 아니라 이웃이 가난해지면 자기도 가난해지는 시장경제의 원리 때문이었다. 패전국의 경제가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이웃 나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국제 무역이 확대되고 미국도 그들을 상대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경쟁적 보호무역으로 교역이 위축되어 다 같이 못살게 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오히려 교역의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닦기 위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의 계산대로 패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를 안정시켰고, 크게 확대되는 세계교역량에 편승하여 상당수의 개발도상국가가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22) 물론 미국의 정책이 항상 선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공생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 오늘날의 세계무역기구(WTO)다.

WTO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 개방이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는 패배주의적 주장을 제기한다.²³⁾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GATT와 WTO를 주도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만 부유해지고 그들의 교역대상국들은 더욱 가난해졌어야 한다.²⁴⁾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더욱 거세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꾸준히 상승되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나라가 되었다.²⁵⁾ 또한 시장 개방이 어느 한 편에만 유리하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시장을 제공한 선진국들은 그만큼 가난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는 세계화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제로섬이 아니라 교역을 통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공생공영의 원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상호 교역을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가 일방적 수탈보다 우월한 전략임을 입증했다. 그리하여 ‘더불어 잘사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구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 더욱 가속된 세계 경제의 통합은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 맘몬 신을 좇아 더욱 수월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예를 들어 사회학자 박영신은 “세계화가 실제로 추구하는 범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경제 강대국에 유리하게 그들의 규칙을 바탕으로 짜여 있다. 범세계화가 될수록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양극화의 도를 더하고 있을 뿐 그것이 완화될 기미는 여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박영신, *유틀*, 91)고 주장한다. 민중 신학자 김용복도 “세계적 기업들이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적 빈부의 격차는 물론 지구 전역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는 희생을 당하게 된다”(김용복, *유틀*, 62)고 확신한다.

24) 그렇다고 WTO체제가 전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다. WTO 규약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J. E. Stiglitz and A. Charlton, *Fair Trade For All: How Trade Can Promote Developmen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를 보라.

25)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와 같은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 결과 자본과 기술은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이동한다.²⁶⁾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저임금 국가의 임금은 오르고 고임금 국가는 임금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어 상대적 평준화가 이루어진다.²⁷⁾ 한 때 저임금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저임금 국가에서 탈피하고 있다.

저임금 국가로부터 고임금 국가로의 노동의 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소위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의 이동이 자본의 이동처럼 수월한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이동에도 어느 정도의 이질적 문화가 따르지만 노동의 이동은 적지 않은 문화적 마찰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국가들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공생하는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²⁸⁾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²⁹⁾ 특히 신명기에서는 칠칠절과 초막절 축제 시에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가족들만이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함으로써 단순한 이방인 차별 금지를 넘어 연대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

26) 물론 노동의 이동에는 자본과 달리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들은 돈 벌 기회를 찾아서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고, 고임금 국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제한적이거나 노동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27) 프리드먼(Friedman)은 이를 빗대어 세계가 평평해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토머스 L.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김상철/이윤섭 옮김), (서울: 창해, 2005). 원제는 Th.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28)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결혼이주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29) 출애굽기 22장 21절; 23장 9절; 레위기 19장 33-34절; 신명기 1장 16절; 10장 18-19절; 16장 11절, 14-15절; 24장 17절, 19-21절; 26장 13절; 27장 19절.

고 있다.³⁰⁾ 세계화로 인해 선진 민주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이에 따라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성서의 가르침이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길러나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³¹⁾

3) 세계화와 민주화

시장경제의 확대와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했다. 문명충돌론으로 유명한 헌팅턴(S. Huntington)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지구상에는 불과 12개의 민주국가만 존재했었으나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³²⁾ 한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분류에 의하면 자유국가의 수가 1977년 43개국에서 2013년 88개국으로 지난 36년 동안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분적 자유국가도 48개국에서 59개국으로 증가한 반면 비자유국가는 64개국에서 48개국으로 감소했다.³³⁾ 이 기간 중 구소련의 해체와 식민지치령들의 독립 등으로 분류대상국가의 수가 155개국에서 195개국으로 40개국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유국가의 수는 오히려 16개국이 감소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민통치와 독재자의 탄압에서 해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21세기에 접어든지 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독

30) 신명기 16장 11절, 14-15절. 신명기는 삼대명절 중 유월절/무교절에 관해서는 나그네와 약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유월절이 민족적 의미를 띤 기념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수기 9장 14절은 거류민이 원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없다. 그러나 역대하 30장 25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1) 물론 일부 비양심적 고용주들의 확대와 착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욕을 위한 남의 약점을 악용하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이다.

32) S.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33)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4*, (www.freedomhouse.org), January 23, 2014.

재 국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화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떠난 시장경제도, 시장경제를 떠난 민주주의도 절름발이와 같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실시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하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성공하기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민주주의가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한때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물적 자본의 축적에 관심이 모아졌다. 따라서 독재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저축과 투자의 축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달성한 것도 그 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해 경제발전을 포기하든지, 즉 자유와 빵 중의 어느 하나만 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잔인한 선택’(cruel choice)을 피할 수 없다는 암울한 결론으로 이어졌다.³⁴⁾

그러나 그 같은 결론이 잘못되었음이 곧 입증되었다. 아무리 많은 투자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초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점차 누적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외 없이 경제발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비민주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

34) J. Bhagwati,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McGraw Hill, 1996), 204.

왔다는 것과 1980년대부터는 민주국가들이 독재국가들보다 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³⁵⁾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라발(J. Maravall)은 독재국가가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재자가 유능하고 사심이 없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심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공공자원의 유용을 방지하며, 집권자의 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혁이 필요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록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모두 시장경제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시장경제의 성숙한 발전 역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김경원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한다.³⁷⁾ 자본주의 경제가 정치적 독재 아래서 시작되었다 해도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시민사회가 성숙한 영역과 기회를 제공해서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므로 결국 민주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해도 시장경제를

35) A. Przeworski and Fernando Limongi,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1993), 51-71.

36) J. M. Maravall, "The Myth of Authoritarian Advantage",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3-27.

37) 김경원, 「전환기의 생존전략」 (서울: 삶과꿈, 2005), 290.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불평등과 이에 따른 착취와 탄압의 구조가 제거된 사회에서만 참된 자유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국유화)하는 사회주의 체제만이 참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력이 유일한 재산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해줄 사용자가 국가뿐이라는 수요독점(monopsony)의 노동시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유일한 사용자인 국가를 비판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³⁸⁾ 구소련과 북한 등 사회주의 일당 체제에서 조직적인 반독재 운동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³⁹⁾

한동구는 구약에 나타난 신명기 개혁운동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전제적 왕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구현된(신명기) 법률 속에, 그리고 백성의 의지 속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⁴⁰⁾ 그러나 이 운동은 이름 그대로 운동이었고 이상이었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왕이 백성과 계약을 맺고 왕의 통치행위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신명기 개혁운동의 이상이 실현된 것은 록크(J. Locke)의 계약론을 토대로 발전된 근대 민주주의에서였다. 그리고 지난 60여 년 동안 민주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치 경제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남녀 간의 차별 철폐와 여성의 해방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약은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 등 약자를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38) 물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순수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39) 유종근,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서울: 세훈, 2000), 74-75.

40)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서울: 동연, 2014), 41.

의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이상이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⁴¹⁾ 이는 남자나 여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가난한 자나 부자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약자의 차별은 정치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기근을 해소하는데 불가결의 요소이다. 노벨 경제학상(1998년도)을 수상한 센(A. Sen)은 기근으로 인한 대량 아시는 독재국가에서만 발생하고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⁴²⁾ 최근 유엔조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에 관한 보고서에도 북한의 김정은이 2012년에 화장품, 핸드백 등 가죽 제품, 고급 시계, 전자 제품, 고급 승용차, 고급 양주 등의 사치품 수입에 6억4,580만 달러를 썼다면서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UNWFP)이 2013년도에 북한에 대한 식량과 기타 인도적 지원에 필요하다면서 증여국가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김정은이 사치품 수입을 위해 쓴 경비의 1/4도 안 되는 1억5천만 달러임을 지적했다.⁴³⁾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때에도 GDP의 1~2퍼센트에 불과한 1억~2억 달러면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발전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국제적 공생 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초래하여 탄압과 수탈과 전쟁으로 고통 받아온 수십억 민중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결국은 세계화의 파도가 휩쓸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사 58:6)

41) 물론 최근 생활고에 기인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직도 사회복지정책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42) A. Sen,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1999), 160-188.

43) J. Stanton and Sung-Yoon Lee, “Pyongyang’s Hunger Game”, *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rch, 2014.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 이는 만인이 상호 의존하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이 된 21세기에는 이 같은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체제에 편입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세계화와 인권

구약의 토라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창 1:27)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지혜문서에서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잠 14:31),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자신과 동일시(identify with him)하며(잠 19:17), ‘남종이나 여종’을 지으신 이가 곧 그들의 주인을 지으신 이라고(욥 31:15)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성별이나 빈부 차이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형제들이거나 자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케슬러(R. Kessler)는 지혜 전승의 평등사상이 창조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세계적 차원에서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의 영향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된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이후부터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인권의 신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노예제도의 철폐와 인종차별의 종식이다.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후 계약법전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종살이를 하게 된 자는 그 주인을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출 21:2; 신 15:12; c.f. 레 25:39-41)을 명령했다. 물론 이 계명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항상 준수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법령은 거듭 거듭 회

44) 라이너 케슬러, “토라와 인권들”,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361.

복되었으며 ... 계약의 갱신은 노예의 해방을 의미했다.”⁴⁵⁾

물론 구약은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예에 관한 규정들은 빛을 못 갠거나 생계를 위해 스스로 종살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계약적 노예관계, 즉 당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 하에서 불가피했던 이 제도가 인권의 구조적 박탈로 퇴락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집트에서의 히브리인들처럼 민족적 혹은 인종적 차이를 근거로 노예로 만들어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구약은 그리스도가 와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 (사 42:1, 4) 비전을 선포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각 사람은 천부의 존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은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촉발된 남북전쟁 중인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선언함으로써였다(영국에서는 그보다 먼저 1834년에,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들에서는 179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실질적으로 제거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지난 후 킹(M. L. King, Jr.) 목사가 주도한 민권운동에 주류 백인 사회가 적극 지지하면서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간헐적 사건을 제외하고⁴⁶⁾ 사실상 사라진 것은 20세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 1980~1990년대쯤이라 할 수 있다.

인종차별이 불법화 되고 주류 백인 사회로부터 배척된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의식의 고양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차별이 사라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첨예화라고 할 수 있다.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인종차별은 차별

45) 김용복, *웃음*, 16.

46) 작년(2013)에도 플로리다에서 흑인 청소년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그를 사살한 백인 자경대원에게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트레이본 마틴 사건)이 있었다.

주의자에게 손실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의 압력에 의해 차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유능한 인재를 인종 때문에 차별하였는데 경쟁 회사에서 그를 좋은 대우로 데려가면 차별주의자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법적으로 철폐한 것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적 차원으로 경쟁이 첨예화한 1990년대 전후에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아파테이트’(apartheid)라는 구조적 흑인 차별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은 20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1991년이었으며, 인권 보장이 강화된 헌법이 완전히 발효하게 된 것은 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이였다. 이 과정에서 백인 정권이 ‘아파테이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대국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세계화로 인해 교역과 투자로 얽혀 있는 나라들이 투자를 철수하고 교역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가한 것은 정치적 압력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였다. 결론적으로 노예제도의 철폐와 인종차별의 소멸은 세계화로 경제적 대외의존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해지는 제재를 벗어나려는 경제적 동기가 인간의 그릇된 편견과 착취욕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차별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남자들과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여성들을 계속해서 차별하는 것은 정치적 손실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정치적 요인 외에도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의 압력이 여성의 차별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이 여성 인력을 차별 없이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을 목격한 국내 기업들이 여성차별이 어리석은 일임을 차츰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기업들도 여성에게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5) 세계화와 경제적 평등

이처럼 세계화가 인권의 신장과 차별 없는 평등사회의 건설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다. 물론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이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고 노동은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세계화는 경제적 평등의 적인가?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을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의 기초로 보고 있었기에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경제적 평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대대적인 몰수와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몰수와 재분배가 이루어진 후 시간이 흐르면 사유재산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유재산이 평등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몰수와 재분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통치 계급과 피통치 계급 간의 권력 불균형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시절 모스크바 시내의 간선도로에는 중앙차선이 있었다. 버스 전용차선이 아니라 공산정권의 특권층(nomenklatura)을 위한 전용차선이었다. 평등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권력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였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문제는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권력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통치 하에서는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평등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억 인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오늘날도 북한에서 입증되고 있다.⁴⁷⁾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는 생산의 능률은 보장하지만 그 결과의 분배는 자못 냉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7. 세계화의 그늘’을 보라).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시장의 냉혹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선호가 특정 상품에 몰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는 공급을 확대한다. 역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수요가 감소하면 안 팔린 재고가 증가해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자는 공급을 줄인다. 이같이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가격과 공급이 조정됨으로써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원의 배분도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선호가 시장을 통해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구매 행위를 통해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이는 소비자가 그 상품의 공급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 즉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해 ‘돈으로 투표’

47) 1990년 전후 소련에서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시작하여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유머가 회자되고 있었다.

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거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하는 자원 배분의 결정이 ‘돈의 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자원 배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최근의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그러나 ‘돈의 투표’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투표권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므로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불평등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의 ‘1인 1투표제’이다. 경제적으로는 ‘1원(圓) 1투표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1인 1투표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사회복지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양대 정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좋은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국가 가는 개발도상국가들을 돕기 위한 해외개발원조(ODA)도 제공하여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한다. 물론 그런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또 다른 문제이다.⁴⁸⁾

투표권의 평등은 지나친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부자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소수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시 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사회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분배와 사회보장정책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48) 이 문제에 관해서는 D. Acemoglu and J.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2012)를 보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책이 계속 강화되면 경제적 능률의 저하를 가져온다.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된 나라에서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나친 평등 추구로 경제적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면 정치적 반작용이 일어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리하여 민주국가에서는 평등과 능률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중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면 평등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다가 그로 인해 경제적 비능률이 누적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회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빈곤한 가운데 권력과 부가 특권층에 집중되는 반면에(북한과 중국을 보라) 돈의 투표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이에 따른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1인 1투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하는 민주사회에서 오히려 권력과 부가 '비교적' 더 평등하게 배분된다고 할 수 있다.

구약의 계약법전은 한편으로는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격적 평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화되고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십일조 규정, 안식년 규정과 면제 규정 및 희년 규정, 그리고 수확에 관한 규정, 전당물과 품삯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고 하였다(출 21:1-11; 23:10-11; 레 19:9-10, 13; 23:22; 25:1-17; 신 14:28-29; 15:1-18; 26:12-15). 물론 구약의 평등사상이 근대적 개념의 재분배 정책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법전의 평등 정신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상당부분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⁹⁾

49)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마 26:11; 막 14:7; 요 12:8)이라고 지적하여 빈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을 암시했는데,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등 가난을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6) 세계화와 평화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무기의 위력도 극대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전쟁을 일으키면 인류의 공멸이 불가피하다는 공포심이 강대국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전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⁵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과거 영토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병합했을 때 이를 극렬히 반대하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력 개입을 자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매우 불안정한 평화이다. 만일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전략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군비 강화를 예견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이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6)는 축복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사 9:6)으로 올 것을 계시하였으며,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 미 4:3)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악한 세상에서 일방적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채워져 있다. 야훼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비전은 “만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 그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

50) 전문가들은 이를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체제라고 부른다.

하는”(사 2:2-3)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인간은 정녕 전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18세기 말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칸트(I. Kant)는 1795년에 발간한 「영구평화론」에서 각국의 헌법에 공화국의 정체를 채택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⁵¹⁾ 칸트의 이 같은 제안의 영향을 받은 윌슨(W. Wilson) 미국 대통령은 1918년에 세계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천명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제안했으나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칸트의 시대어나 윌슨의 시대어나 세계평화는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⁵²⁾

그러나 20세기가 끝나가면서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경험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러셋(B. Russett)에 의하면 1815년 이래 민주국가들끼리 전쟁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⁵³⁾ 1815년 이전에는 민주국가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민주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민주국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지만 단 한 번도 민주국가끼리 전쟁으로 분규를 해결하려 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국가의 속성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보통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후

51) I. Kant, *Zum Ewigen Frieden*, in *Schriften* (Berlin, 1900), vol. 8.

52) 실패한 국제연맹 대신에 2차대전이 끝난 후(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본부 건물(뉴욕) 앞의 함마슬드광장에는 이사야 2장 4절이 새겨진 부조물이 있다.

53) B.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자가 타협을 거절하면 민주국가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택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비민주국가의 노선에 위협을 느낀 민주국가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의 하나인 것도 북한이 일인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개방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민주주의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석탄 철강 공동체’(Coal and Steel Community)에서 시작되어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통합과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여감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였다. 민주화와 세계화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민주화와 세계화는 세계평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⁵⁴⁾

세계화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지면 갈등의 대상이 비민주적 국가라 해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이 전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토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일본도 전면적 전쟁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54) 물론 민주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민주사회에서는 항상 평가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사회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은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전쟁을 억지하고 세계평화를 촉진한다. 냉전 시대에도 공멸의 두려움 속에서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합의에 의한 군비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된 최근에 오히려 동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군비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모든 나라가 민주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전쟁은 상대적으로 억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구의 종말 이전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날이 올 것인가? 모든 것이 가속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 날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온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느 비전이 온전히 실현되지는 못한다 해도 크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7) 세계화의 그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끝없는 확대 재생산 과정을 통해 인류의 생활 수준과 기술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18세기 들어 서유럽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이 산업혁명을 이끌어냄으로써 인류 사회는 과거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이 같은 변화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던 옛말과 달리, 이제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처럼 가난 구제도 못하는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하는 ‘실패한 나라’(failed state)로 전락하게 되었다.

지난 300여 년 사이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면에 경쟁이라는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쟁의 중요성은 아담 스미스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없이 강조해왔다. 슈페터(Schumpeter)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과정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표현했다. 보다 새로운 것, 보다 생산성 높은 것, 보다 경쟁력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창조적 파괴는 끊임없는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 대응이다.⁵⁵⁾ 따라서 창조적 파괴는 시장경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혐오한다. 경쟁이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경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남들이 나와 경쟁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경쟁을 무시하면 나만 도태된다. 그렇다면 모두가 경쟁을 못하게 하면 어떨까? 경쟁을 배제해 총체적으로 궁핍해진 극단적인 사례로 냉전시대 공산주의 국가들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한 가운데 모든 경쟁을 배제한 결과 경제가 침체되고 끝내 파탄으로 치닫고 만 것이다. 경쟁은 이렇게 중요하다. 다만 자유 경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운동경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행위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혼란과 비생산적인 약육강식이 초래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법치국가에서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전 지구적 경쟁체제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십년부터 세계화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여겨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은 1980년대에 유럽과 북미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며 세계 시장을 맹렬한 속도로 잠식하던 일본에 뒤쳐진 영국과 미국이 저성장과 천문학적 무역적자에서 탈피하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⁵⁶⁾ 그리고 영미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유

55)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50).

56) 신자유주의 개혁의 이론적 근간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립의 선진국들도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 개혁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와 기업들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국내 또는 지방의 라이벌과 경쟁하던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소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자동차, 스마트 폰 등 제조업체) 개인이(스포츠맨, 연예인 등)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태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 도시의 오페라 극장을 중심으로 지방의 명가수로 군림하던 성악가들이 전 세계를 CD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장악하여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소수의 슈퍼스타들에 밀리어 무대 위에 설 기회를 빼앗기고 제자들을 상대로 레슨이나 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수 싸이가 단기간에 세계적 슈퍼스타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 시장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과 소수의 개인에게 갈수록 경쟁력이 더 집중하도록 하여 불평등의 심화를 세계화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 현상으로 대두시켰다.

이처럼 세계화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산업사회 출발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제 자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체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분적 수정을 가할 것인가? 마르크스-엔겔스는 전자를 옹호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에 성공하여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를 보라.

1991년까지 70여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도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한편 시장경제 체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혼합경제(mixed economy)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체제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물론 혼합경제 체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개선책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시장경제 체제와 세계화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인류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의 폐단이 비록 심각하다 해도 세계화 그 자체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쿠바와 북한마저도 체제 붕괴의 위협이 없는 범위에서나마 세계 시장에 편입하려고 애쓰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려는 어떤 노력도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노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자본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는 서투른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국내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의 강성 노조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보라. 따라서 불평등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동시에(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허용했으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다자간 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을 통해 WTO체제를 출범 시켰던 것과 같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리더십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한편 세계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소위 '코카콜라 식민지화(Coca-Colonization)' 또는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 등의 부정

적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구 문명을 다른 문명에 부과하고 획일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⁵⁷⁾ 그리고 그 결과 가치관의 붕괴와 문화적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⁵⁸⁾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단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상품이든 문화든 빠른 속도로 세계의 구석구석을 향해 퍼져나간다. 맥도널드가 세계를 제패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국내의 동종 기업을 누르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와 까르푸는 국내 경쟁기업들에게 밀려 철수해버리지 않았는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위시한 케이 팝(K-pop)과 한류 드라마뿐만 아니라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식, 일본의 스시나 사시미 등 비서구권 문화도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1980년대에는 미국이 일본의 경영기법을 배우려고(즉 ‘재패니즈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지나친 피해의식일 뿐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다르고 또 서로 다른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발전시켜왔으며, 서구의 자본주의 제도를 일본이 먼저 도입하고 한국이 대체로 일본을 모방했으나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자 고유의 기업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획일화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미국에 불교 사찰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화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산업화 이전의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할 때보다 산업화와 세계화로 전통적 문화가 상당히 퇴조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살아 있는 전통적 문화의 바탕 위에 이질

57) 예를 들어 박영신, *유클, 90-91*을 보라.

58) 김용복, *유클, 64*.

적 문화들이 유입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⁵⁹⁾ 전에는 각각 독특하면서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조 각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국경이 느슨해진 탓으로 조 각보의 각 조각들을 더 작은 조각들로 나누고 전체를 섞어 모자이크 한 것처럼 다양성이 통일성 안에 공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질적 요소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어 느 정도 동질화되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질화 (homogenization)는 문화적 차이 또는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인종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Alle Menschen werden Br der) 데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시적으로는 서구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맥도널드 햄버거를 사먹고 코카콜라를 사마시도록 아무도 강요받지 않은 것처럼 문화적 서구화가 강요된 것 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각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 라면 서구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근동에서 시작되어 거의 2000년 동안 서구 화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된 그리스도교의 신봉자들, 즉 서구화 그 자체 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 되었다 해도 서구 사회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거주하 는 서구인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세계의 소비자 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판단하는 것은 가치

59) 케슬러는 “21세기 초반의 사회적 현실은 다양한 생활양식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세계관들, 다양한 법 률관, 다양한 규칙들과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립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규정한다. 케슬 러, 윌글, 349. 세계가 축소되어감에 따라 지역적 또는 민족적 문화의 독창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 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가톨릭 신학자 테이아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이었다고 한 다. R. M. C. Jeffery, "Globalization, Gospel, and Cultural Relativism," in Th. F. Foust, et al. eds.,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2), 195를 보라. 사회학자 기든스도 비슷한 관찰을 하였다. A. Giddens,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Books, 2002) 13을 보라.

판단이라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3. 세계화의 선교적 함의

자급자족의 농경사회가 변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시장경제로 발전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모든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는 시장과 시장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통합을 이루거나 보다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여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경제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공생공영의 지구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21세기의 여명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거나 근접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을 전후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에 편입한 가운데 인터넷 등 교통 통신의 혁명으로 세계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구촌은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이 같은 경제 사회적 현상이 복음의 세계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교적 확산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요구되는 것일까?

1) 우주적 구원과 복음의 세계화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창 1:4, 10, 12, 18, 21, 25).” 특히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여 완전하신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이 완전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창 3:17).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0-21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

복”하고 “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조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롬 8:19)”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그 때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롬 8:21). 그 결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인간 사회에는 공의가 확립되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사 11:3-9; 롬 8:19-25 참고). 그리고 그 구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하셨다(사 11:1).

“이새의 줄기”와 “그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후에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전해주셨다. 먼저 하나님은 아직 아들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말 씀으로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였고(창 12:2),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암시하셨다(창 12:3).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땅을 저주하실 때 복음의 세계화와 피조물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성육신의 계보를 이어갈 족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 계시를 이새의 아들 다윗 왕에게 확인해주셨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시는 후에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였고 그의 이름

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2, 6-7).” 그가 ‘인자(인자 72)’로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계시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다(단 7:13-14).

이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사 42:1-4).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며(사 49:6),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사 42:7).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시온 산으로 모여들어 야훼의 가르침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만민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사 2:1-4; 56:7; 렘 3:17; 미 4:1-3; 습 3:9; 습 8:20-23).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따른 구별이 사라지고,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이 비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고전 12:13 참고).“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고후 5:17).

또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한다(마 24:14; 막 13:10).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야훼)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야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

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야훼)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는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신다(사 66:19; 롬 11장 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종은 고난 받는 종이 다(사 52:13-53:12). 그는 외모가 초라하여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53:2-4).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았다(53:5).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갔지만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53:6). 그는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묵묵히 견디셨다(53:7).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53:1).⁶⁰⁾ 그러나 그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52:15).⁶¹⁾

그리하여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사 25:6-8).“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사 65:17).“

2) 그리스도와 복음의 세계화: 지상명령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추구했다. 경제적 사회적 현상으로서

60) 바울은 이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23)이라고 했다.

61)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라고 했다.

의 세계화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18-20; 막 16:15-16; 행 1:8)에 따라 처음부터 복음의 세계화를 추구했다. 복음의 세계화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품고 계신 우주적 구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약에서 반복해서 선포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첫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17:18 참고)”고 했다. 이는 내(예수)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처럼⁶²⁾ 너희도 모든 것을 나(예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의 파송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령은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전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으로 모든 선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령의 내용이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조합 배열되어 있다. 헬라이어의 문장 구조가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을 ‘가급적’ 헬라이어의 순서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가복음: 가라, 온 세상으로; 그리고 선포하라,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62)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요 14:31) 행하였다.

사도행전: 내 증인들이 되어라,⁶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1) 가서 전하라

두 복음서에는 ‘가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 사도행전에는 ‘가라’는 단어가 없지만 문맥상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 되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온 천하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예수는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⁶⁴⁾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권하였다(마 4:18-22; 막 1:16-20). 또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24).”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다(마 4:24-25; 8:2-4 외 도처).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러 ‘두루 다니시는’ 예수를 찾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되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땅 끝까지’ 찾아나서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속의 ‘모든 민족’은 유대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선교 대상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이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국인을 위해 국내의 낯선 곳으로, 또는 자신의 거

63) 개역개정판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ἑσθῆς ἐνὶ μέσῳ의 직설법 미래 시제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명령형 현재 시제로도 볼 수 있다.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112, 사도행전 1-7장』 (서울: 제자원 바이블넷, 2002), 58을 보라. 영어에서도 직설법 미래 시제의 주어가 2인칭이고 그 주어에 해당하는 자가 서술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된 내용대로 될 것이라고 직설법 미래형으로 말하면 이는 대화의 상대(2인칭)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강한 명령형으로 이해된다.

64) 요한복음에는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거니시는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요 1:35-43).

주 지역에서 동료 시민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도 선교활동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주님으로부터 선교(mission)의 사명(mission)을 위임받은(commisioned) 선교사(missionary)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경건한 유대인들(행 2:5)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한 일이었으며(행 2:22-40),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의 미문 앞에서 두 다리가 마비되어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성전 경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일이었다(행 3:1-26). 하나님은 그 후 예루살렘에 안주하던 제자들을 큰 박해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시어(행 8:1) 그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전하도록 하셨다(행 8:40).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세 차례나 두루 돌아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으며(롬 15:19), 로마를 방문한 후 당시에는 땅 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에도 가고자 하였다(롬 15:23-24).

(2) 온 세상으로, 땅 끝까지

슈나벨(Schnabel)은 예수의 지상 사역이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서 글로벌한 차원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한정된 그의 지상 사역보다는 부활 후 열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 나타났다고 지적한다.⁶⁵⁾ 과연 그런가?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자기를 찾아온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 병을 치유해주셨을(마 8:5-13; 눅 7:1-10)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다라(Gadara)에서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고(마 8:28-34; 막 5:1-20; 눅 8:26-

65) Eckhard J. Schnabel, "Global Strategies and Local Methods of Missionary Work in the Early Church: Jesus, Peter and Paul," in Tormod Engelsen, et al., eds., *The Church Going Global: Mission and Globaliz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2011), 22.

39), 두로(Tyre) 지방에서 수로보니게(Syrian Phoenicia)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으며(마 15:21-28; 막 7:24-31), 데카볼리(Decapolis) 에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셨다(막 7:31-37). 예수는 수가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요 4:22)”을 지적하셨으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요 4:5-42), 비록 열두 제자를 처음 파송할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고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고 강조하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다.

이처럼 예수는 비록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넓은 활동무대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의 지역에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 랍비’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방인 접촉을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에게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8:18),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주적 권위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천하에, 땅 끝까지’ 갈 것을 명령하셨다. 물론 모든 선교사가 다 온 천하를 두루 다닐 수는 없다. 각각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행 16:6-10).

(3)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천하에, 땅 끝까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였

는데 ‘제자 삼는다’는 의미의 동사 ‘마테튜오(μαθητεύω)’는 ‘세례를 주면서(βαπτίζοντες)’와 ‘가르치면서(διδάσκοντες)’라는 현재분사형의 두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제자 삼는다’는 것이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계속해서(현재분사) 가르치라는 것이다. 예수의 지상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즉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되 그들이 이를 다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⁶⁶⁾ ‘영접 기도’하고 기본 과정 거쳐서 세례 받고 나면 주일 예배에서 설교나 듣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아야 그들이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 즉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 ‘그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그의 참 제자가 된다(요 8:31). 그리 하면 그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엡 6:17)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엡 6:11).

마가복음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기록되어 있다(16:15).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뜻한다.⁶⁷⁾ 이 ‘메시지(kerygma)’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마가복음의 명령이 단지 복음 선포에 그치는 것같이 보이나 17-18절에 묘사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도행전의 명령은 “내 증인들이 되어라”고 하여 두 복음서들

66) 이 가르침에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해석도 포함된다(눅 24:27).

67) *Holman Bible Dictionary* (Nashville, TN: Holman Bible Publishers, 1991), 567.

과는 뉘앙스가 약간 다른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복음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증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롬 12:5; 고전 12:27; 골 1:24). 따라서 교회의 일차적 사명(primary mission)은 선교(mission)이며 선교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구더(Guder)에 의하면 증거(martyria)는 복음의 선포(kerygma)와 더불어 친교(koinonia)와 섬김(diakonia)이 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⁶⁸⁾ 여기에서 말하는 ‘섬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각각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튀스(μάρτυς)’는 순교자(martyr)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첫 선교사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허다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하였으며 그들은 이를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모든 선교사가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21:22)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하는 각오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68) D. L. Guder,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0) 53–55. [K. J. Rgenson, “Edinburgh 2010 in Global Perspective”, in T. Engelsen, et al., eds., *The Church Going Global: Mission and Globaliz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2011), 14에서 재인용]

(4)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세례를 베풀면서’와 ‘가르치면서’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세례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바로이어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언하여 선포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들이 되어라’는 명령만 있고 세례에 관한 명령은 없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찢려 ...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행 2:37)”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행 2:38)”고 권면하였다. 이 또한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회개하는) 자들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함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5장 16a절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만일 그런 뜻이었다면 세례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16b절에서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였을 것이다. 신약성서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 3:16, 36; 엡 2:8-9).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 중 하나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구원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주님이 친히 받으셨고 또 친히 명령하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여 세례의 의미와 기

능을 공관복음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막 1:4; 눅 3:3; 마 3:11 과 비교하라)로 설명한다.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여기서 ‘죄 사함을 위한’은 ‘회개’를 수식하고 ‘회개’는 ‘세례’를 수식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이며 세례가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상징하는 의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한다(롬 6:3-4; 갈 3:27; 골 2:12).

한편 베드로전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3:21)”고 함으로서 세례를 구원의 표(ἀντίτυπον: 모형, 형상, 예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여 성도가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세례는 이것을 상징하는 예표라고 풀이함으로써 바울의 설명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또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목욕과 같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NIV는 ‘pledge:서약으로 번역)라는 것이다.

(5) 성령을 힘입어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들이 되어라(행 1:8; 필자 번역)”고 명령하셨다.⁶⁹⁾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69) 사도행전 1장 8a절에서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
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직설법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8a외 8b를 연결하는 ‘ ’는 문
맥상 ‘그리고’보다는 ‘그러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전권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예수는 지상 사역 중 열두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마 10:1; 막 3:15). 이는 부활 후 그들에게 내리실 지상명령을 위해 그들을 미리 훈련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먼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사 42:1; 61:1),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성령에 힘입어 지상사역을 준비하셨고(마 3:16; 4:1; 막 1:10, 12; 눅 3:22; 4:1; 요 1:32) 행하셨다(마 12:28; 눅 4:14, 18; 11:20; 요 3:34).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강림을 체험하였고, 성령을 힘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던 바울도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이룩한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였다(롬 15:19; 고전 2:4).

물론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 해도 모두가 다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나 방언을 말하는 자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될 수는 없다(고전 12:29-30). 이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2:11).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역을 위해 어떤 권능(은사)을 받는지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좋은 주인의 뜻에 따를 뿐이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ambassador)’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한다(고후 5:14-21).

3) 세계화와 선교의 기회

앞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통합하며 교역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는 시장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므로 시장경제의 대두와 더불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확히 언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의 ‘카이로스(kairos)적’ 시점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시기, 즉 헬라 문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정착된 기원전 1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그의 첫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하여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으며, 그 ‘때는 헬라어의 국제적 통용과 팍스 로마나의 정착으로 로마 제국 내의 여러 도시들, 특히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들이 다수 정착한 도시들을 비교적 순조롭게 여행하며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첫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헬라 문화와 팍스 로마나라는 정치적, 경제 사회적 배경이 복음의 세계화를 시작하는 여건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땅 끝을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스구디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하라이북 아프리카로 여겼을 정도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스도교의 확산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이에 따른 교역 루트의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저적한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세계화의 영향이 ‘범세계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는 경제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화의 첫 번째 큰 물결이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을 때였다.⁷⁰⁾ 이 같은 정치 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선교역사상 유례없는 지리적 확장과 수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사학자 라투렛(K. S. Latourette)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고 불렀다.⁷¹⁾ 이 과정에서 열강의 식민지 팽창 정책과 관련하여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교사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 ‘경건주의(Pietism)’ 운동과 ‘복음주의 각성운동(Evangelical Awakening)’ 등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교파별 선교 단체들 간의 중복 또는 경쟁 등의 문제들을 조정할 에큐메니칼(ecumenical)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⁷²⁾

그리하여 1910년 6월에 에딘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선교대회(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에딘버러 1910”으로 알려진 이 대회의 공식 주제는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였으나 사실상의 구호는 “비기독교 세계로의 복음 전파(Carrying the Gospel to the Non-Christian World)”였다.⁷³⁾ 이 구호는 기독교 세계(북반구의 서양)로부터 복음을 동양과 남반구로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기독교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1910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전체인구의 9.4%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5억 명으로 급성장 하여 전체인구의 47.9%에 달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1910년에 2,500만 명으로 아시아 전체인구의 2.4%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3억5천만 명(전체인구의 8.5%)에

70) 첫 번째 큰 물결은 192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가 1929년 10월에 시작된 세계대공황과 더불어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71) 김은수, 「해외선교 정책과 현황」, (서울: 생명나무, 2011), 66.

72) 김은수, 윗글, 67.

73) K. J rgenson, 윗글, 4.

이르게 되었다.⁷⁴⁾

이와 같은 변화로 전형적인 선교사는 더 이상 '서양에서 온 백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파추아우(Pachuau)는 "1910년의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가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로 전하는 근대 선교운동의 정점이었다면 에딘버러 2010은 아시아로부터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와 세계 전역으로의 선교라는 또 하나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⁷⁵⁾ 이에 따라 선교의 접근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전 총무 필립 포터는 "우리는 세계화의 의미가 무엇이나를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감상을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존재 자체가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세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⁷⁶⁾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두 번째의 세계화 큰 물결은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는 가운데 자원과 상품과 사람이 국경을 초월하여 유례없는 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미 남반구와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유럽과 북미대륙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은 선교의 패턴과 기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인구 이동은 초기 기독교의 선교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Phoenicia)와 구브로(Cyprus)와 안디옥(Antioch)까지 이르러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교회가 형성되었다(행 11:19-21).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도

74) T. M. Johnson and K. R. Ross, eds.,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1910-2010*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K. J rgenson, 원글, 6에서 재인용]

75) L. Pachuau, "Missionaries Sent and Received, 1910-2010," in Johnson and Ross, 원글, 268. [K. J rgenson, 원글, 10에서 재인용]

76) 필립 포터,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세계화," 「교회와 세계」 185호(1999년 11월), 43.

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유대인들이 비협조적일 때에 이방인들만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였다(행 13:44-52).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서 바울과 동행하던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외에도 빌립보의 루디아(행 16:12-15), 데살로니가의 야손(행 17:5-9),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행 18:7-8), 고린도와 에베소 두 곳에서 활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행 18:1-3; 18-19; 26) 및 아볼로(행 18:24-28) 등 현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서 선교사는 먼저 사역지 내에 이미 정착해서 현지에 뿌리를 내린 동포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신보다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그들을 원주민 선교의 동역자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주민들을 선교사역의 중요한 대상과 조력자로 활용했으나 이주민의 규모와 거주 지역은 오늘날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다. 오늘날의 인구 이동은 그 규모(scale)와 범위(scope)와 속도(speed)가 200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지고 빨라졌다. UN의 200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주민이 약 2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⁷⁷⁾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민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적극적인 전도자들이다.⁷⁸⁾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하는 것보다 이주민이나 피난민들이 그들의 새 정착지에서 그들의 믿음을 전파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북미대륙과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다.⁷⁹⁾ 그 결과 기독교의

77) J. S. Escobar, "Mission Fields on the Move," *Christianity Today*, 54(May 2010), 29.

78) K. J. rgenson, *윇글*, 11.

79) J. J. Hanciles,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Orbis Books, 2008).

새 중심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미 열기가 식어버린 옛 중심지에 그들의 믿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스도인 이주민은 각자 잠재적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로 나이지리아에서 구소련의 장학금을 받아 벨라루스로 유학을 갔던 아델라자(S. Adelaja)라는 청년이 소련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로 이주하여 1994년에 키예프에 7명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의 말씀 교회(Word of Faith Church)’를 설립했는데 2010년 현재 대다수가 백인들로 구성된 3만 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으며, ‘만민을 위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Embassy of the Blessed Kingdom of God for All Nations)’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35개 국가에 700여 지부를 두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⁸⁰⁾ 우리나라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Henry Nuosu)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산다문화센터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서 중국에서 온 이주민(이철호)이 중국 이주민(한족 및 조선족)들을 섬기고 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다수의 그리스도인 이주민들이 그들의 새 정착지에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활발하게 신앙적 교류를 하고 또한 열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자매 교회’(Sister Church)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⁸¹⁾ 이는 자원이 모교회(母教會)에서 자교회(子教會)로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상하관계를 지양하고 상호지원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하여 자원과 아이디어와 믿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함으로써 서로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참여자들

80) J. S. Escobar, 위클리 30.

81) J. K. Bakker, "The Sister Church Phenomenon: A Case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Christianity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6, No. 3(July 2012), 129-134.

은 말한다. 물론 이런 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IT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다수 비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이슬람교도들이거나 무종교인 또는 우상숭배자들이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충실히 따라 미국 다음으로 해외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⁸²⁾ 성령을 힘입어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중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제자 삼으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던 한 청년(잔드라)을 제자훈련 하여 인도네시아인 이주민들을 위한 전도사로 다년간 섬기며 경험을 쌓게 한 후 2013년 10월에 선교사로 임명하여 본국으로 파송하였다. 그 후 일 년도 안 지난 2014년 5월에 그는 성도 40여명을 이끌고 모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렸다. 한국인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면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선교 방법은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어 마치 물에 던져 넣고 수영을 배우라는 식으로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매우 더 효과적이다. 예수도 이방인 사역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훈련시킨 열한 명의 유대인 제자들을 제쳐두고 헬라어를 잘 구사하고 헬라문화에 더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울(바울)을 택하셨는데 그보다 더 절묘한 선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바울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비록 모든 사

82)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는 2009년 말에 2만 명을 넘었다. 김은수, 뒷글, 94.

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으며(고전 9:19),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는 등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고전 9:20-22) 고백한 사실을 잊지 않고 현지인들과 같아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제자로 만드는 것은 특히 이슬람국가 출신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슬람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도 매우 힘들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법적 또는 실질적 제약이 없는 한국에서 이슬람국가 출신 이주민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자에게도 더 쉬운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전도의 대상이 비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4. 나가는 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상에서 나는 신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개괄하면서 성서와의 연관성을 미숙하게나마 고찰해보았다. 먼저 세계화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님을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며 그 기저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맘몬숭배 사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던 맘몬숭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기심을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⁸³⁾ 따라서 같은 현상을 다루더라도 경제학은 신학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교에

83) 경제학자들이 항상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그리 한다.

서 이기심은 다 나쁜 것인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장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베버(M. Weber)가 말하는 청교도 윤리이고 어디서부터 mammon숭배가 되는 것인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이라고 칭찬한 예수는(물론 이 비유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교훈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윤극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오직 ‘중심을 보시는(삼상 16:7)’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기심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던 mammon숭배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경제는 세계화라는 현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는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수반했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적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이에 따른 절대빈곤 인구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개인들과 기업들과 국가들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하여 인간 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와 탄압과 착취로 점철되었던 인류 역사를 공생 공영의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놓고 있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기에 식민 지배를 받던 많은 민족들이 독립주권국가들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널리 확산하여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불과 12개국 밖에 되지 않던 민주주국의 수가 1977년에는 43개국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88개국으로 증가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국가도 59개국에 달하여 지구상의 절대다수가 불과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은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입지를 앗아가 차별 없는 평등 세계로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

하고 있다.

한편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본은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몰리어 저임금 국가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노동은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여 고임금 국가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경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점차 평준화되어가는 현상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고임금 국가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을 일으켜 다양한 인종이 공생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받는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존엄한 존재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을 기본 권리가 있다는 인권사상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천부적 인권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보편적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이래 세계적으로 인권이 눈에 띄게 신장된 것은 세계화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 경제적으로 투자와 교역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억지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민주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소위 ‘민주평화’(democratic peace) 이론이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세 이래 인류가 꿈꾸어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품어왔던 평화의 비전이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크게 진전될 것이다. 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에는

못 미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다. 따라서 나는 세계화가 진행되어온 과정이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을 위해 그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행하신 정지작업이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헬레니즘의 확산과 팍스 로마나의 정착으로 ‘때가 차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의 첫 선교사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갈 4: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복음의 세계화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예수가 복음을 세계화하는 방법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지상명령을 통해 주신 원칙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대상으로 각각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예수는 다단계사업의 창시자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처음에 팔레스티나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복음의 세계화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유럽을 거쳐 차츰 더 멀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복음은 이전의 불모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맹렬한 속도로 팽창하면서 과거에는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열기가 식어버린 유럽과 북미대륙에 이주민을 통해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한편 수십 년 전만 해도 선교의 대상지였던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제2의 선교대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본국으로 파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위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중국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마치 잔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반이나 비어 있다’고 보는가와 유사하다.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이 많이 비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맘몬숭배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맘몬 신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창 50:20)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롬 8:28) 과정이며 종말(eschaton)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히 11:1)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 김경원, 「전환기의 생존전략」 (서울: 삶과꿈, 2005).
- 김용복, 「지구화시대 민중의 사회전기: 하나님의 정치경제와 디아코니아 선교」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 김은수, 「해외선교 정책과 현황」 (서울: 생명나무, 2011), 66.
- 박영신, “초월의 정신과 범세계화의 정황 - 구약의 상징 구조에 대한 사회학도의 생각 하나”, 「구약논단」 제50집(2013년 12월), 76-115.
- 아담 스미스, 「국부론 I」 (유인호 역), (서울: 동서문화사, 1976), 29-30. 원제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Strahan and Cadell, 1776).
- 로버트 A. 아이작, 「세계화의 두 얼굴」 (강정민 옮김), (서울: 이룬아침, 2006). 원제 Robert A. Isaak, *The Globalization Gap: How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Left Further Behind* (New York: Prentice Hall, 2005).
- 유윤중,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계화: 세계화 상황에 대한 예언자적 사역”, 「구약논단」 제50집(2013년 12월), 31-75.

유종근,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 (서울: 세훈, 2000).

_____, 「신뢰와 사회적 자본: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서울: 청어, 2013)

라이너 케슬러, “토라와 인권들”, 「구약논단」 제50집 (2013년 12월), 349-363. 원제 Rainer Kessler, “Tora und Menschenrechte,” 「구약논단」 제50집 (2013년 12월), 364-378.

토머스 L.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김상철/이윤섭 옮김), (서울: 창해, 2005). 원제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필립 포터,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세계화,” 「교회와 세계」 185호(1999년 11월), 41-43.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4).

Acemoglu, Daron and Robinson, James,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2012)

Bakker, Janel Kragt, “The Sister Church Phenomenon: A Case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Christianity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6, No. 3(July 2012), 129-134.

Bhagwati, Jagdish,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McGraw Hill, 1996).

Escobar, J. Samuel, “Mission Fields on the Move,” *Christianity Today*, 54(May 2010), 28-31.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4*, (www.freedomhouse.org), January 23, 2014.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Gates, Bill, “Good News: Vaccines are Conquering the World,” *The World Post*, January 22, 2014.

Giddens, Anthony,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Books, 2002)

Hanciles, Jehu J.,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Orbis Books, 2008).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Jørgenson, Knud, “Edinburgh 2010 in Global Perspective,” in Tormod Engelsen, et al., eds., *The Church Going Global: Mission and Globaliz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2011), 3-19.

Kant, Immanuel, *Zum Ewigen Frieden*, in *Schriften* (Berlin, 1900), vol. 8.

Kim, Kyung-won, “Marx, Schumpeter, and the East Asian Experience,”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evisit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n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1993), 11-25.

MacGillivray, Alex, *A Brief History of Globalization: The Untold Story of Our Incredible Shrinking Planet* (London: Constable and Robinson, Ltd., 2006).

Maravall, Jose Maria, “The Myth of Authoritarian Advantage,”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3-27.

Olson, Mancur,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Wallerstein, Immanuel,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Przeworski, Adam and Limongi, Fernando,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1993), 51-71.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Sachs, Jeffrey D.,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Schnabel, Eckhard J., “Global Strategies and Local Methods of Missionary Work in the Early Church: Jesus, Peter and Paul,” in Tormod Engelsen, et al., eds., *The Church Going Global: Mission and Globaliz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2011), 20-46.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50).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1999).

Stackhouse, Max L., *God and Globalization; vol. 1, Religion and the Powers of the Common Life*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Stanton, Joshua and Lee, Sung-Yoon, “Pyongyang’s Hunger Game,” *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rch , 2014.

Stiglitz, Joseph E, and Charlton, Andrew, *Fair Trade For All: How Trade Can Promote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1980).

검색어

세계화와 성서

세계화와 선교

복음의 세계화

우주적 구원

세계화의 경제 사회적 영향

Globa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Biblical Values and Its Missionary Implications

Jong-Keun You Ph. D.

Former Governor of Jeollabuk-do

I have attempted in this paper to review the socio-economic phenomenon of the globalization with regard to the biblical values and to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gospel as a vehicle for the *Missio Dei*, the salvation of the creation.

The socio-economic phenomenon of the globalization has been much maligned for its alleged aggravation of the gap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hile this is indeed one of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ization, there is also a countervailing tendency toward equalization in a global scale, which the New York Times columnist Thomas Friedman famously dubbed as “the world is flat.” In addition, the globalization has made the overall income level steadily rise so a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standards of living for a great majority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Perhaps,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globalization are the near elimination of colonialism, delegitimization of the despotism, and a significant improvement,

www.kci.go.kr

through the spread of democrac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likelihood of the global peace, even though sectarian and ethnic wars continue to rage today. Moreover, the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in the global markets has made it difficult to ignore the global standards not only in the business area but also i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ll these phenomena reflect the values God has given us through his words in the Bible. And I am convinced that God, as the lord of history, has moved the globalization processes in order that such socio-economic phenomena may serve as vehicles to spread the gospel throughout the globe, i.e., the globalization of the gospel. In the “fullness of the time” when the spread of Hellenis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x Romana made it convenient to spread the gospel, God set in motion the globalization of his gospel by sending out to this world his first missionary, Jesus Christ.

The process of evangelical globalization began by Jesus’ picking out and training his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charged that his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so that their disciples would each make more disciples and the number of disciples would grow exponentially. This process must continue until his second coming and each of us believers in Jesus Christ is charged with his Great Commission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 rapid acceleration of the socio-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the gospel that has transformed the former peripheries of the christianity into new heartlands has caused a new phenomenon in which the migrants from these new heartlands bring their evangelical zeal to the former heartlands of Europe and the North America and reignite the

flickering flame there. Nevertheless, not all the migrants are christians, although many of them are. The church in the host nation must do all it can to make disciples of these non-christian migrants and send them back as missionaries. That is a far superior strategy to sending out missionaries who do not speak the native languages and fully understand the native culture.

Keywords

Globalization and the Bible

Globalization and the Mission

Globalization of the Gospel

Universal Salvation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Globalization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